



1917 - 2017
ISANG YUN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2017 윤이상 국제 심포지엄

일시_

2017.9.23(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_

창선당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

www.changseondang.com

주최_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_



문의_ 031-974-4994

■ 윤이상과 그의 음악 - 트랜스 국가적 시각에서

_김진아(한국외국어대학교)

| 음악공연 | 여창가곡 평조 <우락>과 윤이상의 <에필로그>(1994)

■ 동양은 서양을 만나야만 하는가?

_허영한(한국종합예술대학교)

■ 윤이상과 동아시아 - 일본의 윤이상 수용

_이경분(서울대학교)

■ 이주, 전통과 아방가르드 - 윤이상과 남서아시아의 신음악

_마틴 그레베(이스탄불 오리엔트 연구소)

■ 혼합주의와 변환 - 윤이상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문화성에 대한 작곡가 관점에서의 생각

_코어드 마이어링(Akademie für Tonkunst)

■ 윤이상 음악의 보이지 않는 몸과 타자의 정체성

_임형진(테아터라움 Theaterraum)

■ '풍류'와 '울려'의 변주 - 윤이상 음악의 문화적 원형과 그 미래적 전망

_최애경(충남대학교)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2017 윤이상 국제 심포지엄

윤이상과 그의 음악 - 트랜스 국가적 시각에서

작곡가 윤이상과 그의 음악에 대한 수용은 양분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보는 이의 시각의 초점을 어떤 측면(정치 또는 예술·문화)에 맞추느냐에 따라 그리고 관련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의해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 두 편으로 대립되는 양상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작곡가의 북한과의 교류를 평화주의적인 성향의 표출로 보아 그 가치를 높이 사거나, 아니면 공산당 체제에 대한 친밀성으로 보아 혹독한 비판을 내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적이지 문화적 측면에서 윤이상의 음악을 동·서양의 차이를 서로 접목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칭송하거나, 아니면 서양음악의 헤게모니를 거부하지 않고 서구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윤이상과 그의 음악에 대한 이런 식의 찬반론은 학문적 담론의 생산물이고 사회적 담론과도 관련이 깊은데, 남한과 북한, 서양과 동양, 독일과 한국, 중심지와 주변지 그리고 창조와 모방 등으로 나누어 경계 짓는 사회적 구조에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양분화 양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윤이상과 그의 음악에 대한 세분화된 견해가 결핍되어있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작곡가 윤이상의 탄생 백주년(1917년 9월 17일)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 심포지엄은 위와 같은 수용양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제까지의 윤이상과 관련된 연구가 대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경계짓기에 연계되어 있었고, 연구의 영역이 남북한 분단이란 특수성을 가진 한국이란 지역사회의 단위 속에 머물거나 아니면 한국과 독일 또는 추상적 의미의 동양과 서양 사이의 차이를 거론하는 데에 그쳤고, 더불어 일정한 작곡법이나 특정 작품의 분석에 관여하는 정도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윤이상과 그의 음악을 국제 연구계에서 최근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트랜스 국가적인 시각에서 다루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심포지엄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영역을 다루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트랜스 국가적 차원과 관련된 이론적이지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연구
2. 아직 다루지 않은 기초자료에 근거한 연구
3. 이제까지 소홀히 여긴 주제영역이나 작품에 관한 연구

이로서 이 심포지엄은 윤이상 연구가 앞으로 더 폭넓고 세분화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자극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발표자 | 김진아(한국외국어대학교) 허영한(한국종합예술대학교) 이경분(서울대학교) 마틴 그레베(이스탄불 오리엔트 연구소) 코어드 마이어링(Akademie für Tonkunst) 임형진(테아터라움, Theaterraum) 최애경(충남대학교)

■ 공연안내 ■

Nina Janssen-Deinzer와 Morgenstern Trio 초청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일시_ 2017년 9월 21일(목) 저녁 7:30 | 장소_ 일신히 www.ilshinhall.com | 전화예약에 의한 초대 (문의 031 974 4994)
주최_ 윤이상평화재단, 주한독일문화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주관_ 다빈아트



Stefan Hempel _violin | Emanuel Wehse _cello | Catherine Klipfel _piano
Nina Janssen-Deinzer _clarinet

- 윤이상 | 〈피아노3중주곡〉 〈를〉 〈모놀로그〉
조은화 | 〈사람, 바다를 품다〉(세계 초연)
요하네스 모취만 | 〈한계점 아래〉(세계 초연)
도시오 호소카와 | 〈꽃의 시간〉